

어명소 2차관, 강릉 지역 시멘트 운송 재개 현황 점검

-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송 정상화 강조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일(목) 오후 강원 소재 시멘트 공장 2곳을 잇따라 방문하여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및 운송재개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시멘트 운송 재개를 요청하고, 운송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투입중인 경찰인력을 격려하였다.
- 강릉 소재 한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한 어 차관은 시멘트 업계의 피해 상황과 운송 재개현황을 점검한 후 “강원 지역은 시멘트 출하량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피해가 더 큰 상황”이라면서,
 - “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운송사에게 적극적인 배차 요구와 운송 독려를 함으로써 시멘트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밝혔다.
- 이어 어 차관은 동해 소재 쌍용시멘트 공장으로 이동하여 업계 피해상황 등을 점검한 후 시멘트 운송 정상화를 위해 투입중인 경찰 인력들을 만나 “정상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운송방해 행위 등에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”하면서,
 - “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에도 물류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나와 고생이 많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힘써 달라”고 밝혔다.

2022. 12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